

# ‘저작권수출’ 에이전시

## 세번째의 저작권 紀行 ③

### 韓勝憲

한국저작권연구소장·변호사

저작권의 국제적인 중개를 업으로 하는 에이전트는 저작권자를 대행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기에 중개가 성사된 케이스의 커미션도 저작권자 측에서 받는다.

특히 일본의 실정을 보면, 저작권 에이전트는 외국저작물의 번역출판권을 국내에 중개하는 ‘저작권수출업자’나 다름이 없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처럼, 구미 선진국에서 들여다 번역출판할 것은 많은 데 비하여 ‘수출’ 건수는 너무나 적기 때문이다.

이런 통념을 무릅쓰고 일본 출판물의 번역출판권을 해외에 수출하는 길을 개척한 한 선구자가 있었다.

‘일본저작권수출센터’(Japan Foreign Rights Center, 약칭 JFC)라는 이색적 이름을 가진 에이전트의 사장인 구리다(栗田明子) 여사가 바로 그 장본인이다.

이 분은 서울에도 두번인가 다녀간 일이 있는데, 지난 해 10월에 열렸던 국제출판학술 심포지움에 참가하였을 때에는 저작권의 해외수출에 관한 자신의 풍부한 체험을 발표한 적도 있었다.

그때 서로 만났던 인연을 살려서 나는 간다 진보조(神田 神保町)에 자리잡은 JFC로 그를 찾아갔다. 그리고 한나절 동안 그와 마주앉아 저작권수출업자의 현장 학습을 강행했다.

그는 예전에 다른 에이전시에서 근무하다가 저작권수출의 중개에만 전념하고 싶어서 독립선언을 하고 또 한사람의 여성과 함께 저작권사무소를 냈다. 그리고 자신은 멀리 서독의 쾰른에까지 날아가서 진을 쳤다. 일본책을 싸들고 낮은 외국의 출판사들을 직접 찾아가

**남들이 외국저작권 수입에만 열을 올릴 때, 일본출판물의 번역출판권을 해외에 수출하는 길을 개척한 선구적인 여성이 있다.**  
**그녀가 ‘일본저작권 수출센터’를 창립할 때는 정상급 출판사들이 앞장서서 밀어주었다.**

니면서 소개, 권유 그리고 교섭을 벌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개척자의 고달픔과 보람을 아울러 체험해나갔다.

3년 뒤인 1984년에 그녀는 일본의 정상급 출판사 사장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일본저작권수출센터의 창립 사장이 된다. 小學館, 新潮社, 平凡社 그리고 講談社 등의 사장들이 앞장서서 밀어준 것은 감동적인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력한 25개의 출판사가 출자를 한 것도 전례가 없는 열성이었다. JFC와 구리다여사의 포부에 대해서 당시 일본 출판계의 관심과 기대가 어떠했는지를 가히 알 수 있다.

JFC가 내세운 목적사업은 1. 일본 출판물의 번역권 수출업무를 비롯하여 2. 일본 출판계에 관한 영문 情報誌의 발간 3. 각국에서의 국제도서전 참가 및 일본도서전 개최 4. 일본 문화를 소개하는 출판물 및 소프트웨어의 기획·편집·제작 등이었다.

구리다여사는 사장이면서도 회사 안에 앉아 있지 않고 런던에 건너가 유류주재원으로 서 구미 각국을 누비면서 발로 뛰는 ‘문화行商’을 계속했다.

JFC는 해외의 출판인 및 도서관 관계자에게 일본 출판계의 소식을 알리는 수단으로 「Japan Book News」라는 정기간행물을 발

행하면서 작가나 번역가를 소개하고 베스트 셀러의 리스트, 작품의 내용·배경 등의 소개에 힘썼다.

런던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일본도서 전시회를 열고 현지의 출판인들을 초청하여 능동적인 교섭을 전개하기도 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볼로냐아동도서전시회나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에 해마다 참가하여 번역 출판권 중개의 좋은 기회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구리다씨의 활동을 다룬 신문·잡지와 그녀 자신이 쓴 글 및 두 권의 저서를 읽어보면 그녀의 남다른 생각과 실천력에 많은 감명을 받게된다. 요미우리신문이 1984년 봄에 연5회에 걸쳐 구리다여사의 활약상을 자세히 소개한 것도 그럴만한 이유가 충분했다고 보여진다.

그의 말을 들으면서 외국과의 교섭에서 겪어야 하는 애로를 다시금 실감했다. 구미 선진국의 편집자들은 거의 일본어를 모르기 때문에 일본책을 소개하는데 여간 고충이 크지 않다. 또한 일본어를 구미 선진국의 말로 번역하는데 드는 번역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채산면에서 주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소설이나 학술서적보다는 그림책이나 아동도서가 저작권 수출에 더 적합한 이유도 그

와 같은 난점이 상대적으로 적고 내용전달의 장벽이 낮기 때문이다.

외국의 출판사와 많은 번역출판계약을 체결한 경험에 의하면, 외국의 출판사 쪽에서 일본의 저작권자의 Warranties(권리 및 내용에 관한 보증)을 구체성있게 요구하는 등 세밀한 규정을 희망한다. 계약의 초안에는 if와 if가 되풀이되며, 그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수용해나가다보면 한 건의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소모되는 시간과 노력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내가 직접 문서로 확인한 어느 케이스는, 1987년4월에 시작된 교섭이 그해 11월 초순까지도 매듭지어지지 않은 채 왕복서신만 두툼해져가고 있었다.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책임을 지는 것까지는 당연하나, 전혀 생각지 못한 이유에서 그런 계약문언을 문제삼는 경우도 있었다.

외국에서 번역·출판되어나간 일본인의 동화 속에 “눈을 희게 해주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라는 대목이 들어 있었는데, 이것이 백인을 찬양하고 흑인을 멸시하는 말이라고 문제를 제기해온 일이 있었다. 쥐들이 겨울 낚시를 하는 이야기는 동물애호정신이 투철한 영국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국가간의 문화와 의식의 차이가 그러한 결과를 빚어 내게 되는데, 이것도 문화교류상의 하나의 장애가 된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문화와 학문적 성과를 세계에 널리 알리려 할 필요가 절실한 만큼 저작권의 수입일변도가 아닌 ‘수출중대’를 시도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 마야호로 한국에서도 구리다여사와 같은 선구자가 나와야 할 것이다.

## 결혼·행복·죽음

알베르 까뮈 수상록·단편  
알베르 까뮈 著/이규현 譯

프랑스의 소설가, 극작가, 평론가였던 A. 까뮈의 첫 수상록으로 프랑스 문학의 3대 美文 중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작품.

- 제1부·까뮈 수상록—결혼
  - 제2부·까뮈 결작소설—행복한 죽음
  - 제3부·까뮈·사르트르 논쟁
- 값 3,500원

을지출판사 마포구 신수동 445-5  
전화 716-0991

## 전후세대의 가치관과 이념

안철시·최일섭 엮음

“기성세대와 신세대간의 이념적 차이로 인해 우리 사회는 관망할 수 없을 만큼 큰 회오리바람에 휩싸였다.”

본서는 전후세대의 역사·의식, 종교관, 문화의식, 정치의식, 경제의식, 사회의식, 매스미디어, 복지 의식 등을 심층 분석하여 정리한 논문서. 국판/230쪽/3,800원

集文堂 서울 중구 신당동 251-1  
☎ 252-4657·234-2227

제일 중요한 문제

## 人材 確保

783-6051로 전화하십시오.

“한사코 출판문화 일선에서만 뛰고 싶다면 5개월간 총 220시간에 걸쳐 기획·편집·교정 등 실습중심의 기초훈련을 받은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미숙하지만 철저한 직업정신, 신선한 감각, 힘 있는 학구열을 갖추고 편집자로서 기본을 다진 이들을 이제 여러분의 사람으로 키워보십시오.”

한국편집아카데미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4 동북BD 301·302호

## 동보 기획

포지디자인·본문편집·제작

120 서울·서대문구 미군동 142번지

3131-319